용인시 YONGIN CITY

`26. 9. 29.(화) 15:00

용인미르스타디움 회의실

- 2026년 제2회 용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회 의 록

용 인 시

[청년정책과]

□ 개　회

❍ **〔간　사〕** 위원님 중에 최상국 위원님이 지금 오고 계셔서요. 오셔야 11명이 되는데 지금 일단 또 계속 기다릴 수 없어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간　사〕**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서경순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용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각 사업 담당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제2회 용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임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회의진행

❍ **〔간　사〕** 금일 안건은 청년친화도시 제도 개요 및 추진계획과 민선9기 청년정책과 공약사업입니다. 회의내용은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라 회의록으로 작성되고,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원 소개 및 인사말씀

❍ **〔간　사〕** 다음은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정섭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용인특례시의회 서정일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현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노자은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예지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승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영민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기옥 교육청년여성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문명순 사회복지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정일 위원님께서 새로 임기를 맞아 참석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 **〔서정일 위원〕**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청년이라고 하면 저도 아들 둘인데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나 아니면 우리 사회가 청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회에 참석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어떻게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청년들의 앞날의 희망과 꿈을 갖게 해줄 수 있을지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동위원장 인사말씀

❍ **〔간　사〕** 다음은 김정훈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 **〔김정훈 공동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용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정훈입니다. 먼저 오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용인특례시의회 서정일 위원님, 임정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추진과 민선9기 청년정책과 공약사업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두 안건 모두 앞으로 우리 시 청년정책의 추진 방향과 연결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함께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가 각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원보고

❍ **〔간　사〕** 다음은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에 의거 위원 20명 중 11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 주재는 김정훈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개의선언이 있겠습니다.

□ 개의선언

❍ **〔김정훈 공동위원장〕**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 제2회 용인시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청년친화도시 제도 개요 및 추진계획과 민선9기 청년정책과 공약사업에 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청년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 **〔청년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팀장 류화입니다. 먼저 보고 순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청년친화도시 제도 개요와 지정 추진방향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민선9기 청년정책과 공약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친화도시 제도 개요 및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청년진화도시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정책과 사업을 통해 청년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국가가 지정·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고 청년재단에서 지원하며,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매년 3개 지자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기간은 5년이며, 지정 후 첫 2년간은 연간 2억 5천만원씩 총 5억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재정 지원 외에도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정부정책 연계 자문 등이 함께 제공됩니다.
다음은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방향입니다. 청년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조직 및 전담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청년 참여와 발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정책 실적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특히 청년친화도시는 세 가지 전략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맞춤으로,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과 강점,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그 지역만의 정책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참여입니다. 청년을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로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확산거점으로, 지역에서 만든 우수한 정책 모델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지정절차입니다. 올해 기준 7월 국무조정실의 지정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설명회와 청년재단 컨설팅을 거쳐 지자체가 광역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광역자치단체가 평가 후 3개 ~ 5개 후보 지자체를 국무조정실에 추천하게 됩니다. 이후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및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매년 3개 지자체가 선정됩니다.
다음은 평가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자치단체가 추천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선정 규모의 3배수인 9개 지자체를 선정합니다. 이후 평가위원들기 해당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실제 정책현장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현장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최종 선정 단계에서는 서면평가 점수가 아니라 발표평가와 현장실사 결과를 종합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평가기준입니다. 전체 평가기준은 크게 추진기반과 조직·인력, 실적 및 성과 그리고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추진기반에서는 관련 조례와 전담조직, 전담인력, 청년참여기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등을 평가하고, 실적 및 성과에서는 청년정책 예산과 청년의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등을 평가합니다. 조성계획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전략인 지역특화, 청년참여, 확산거점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즉, 단순히 청년사업의 개수가 많거나 예산의 규모가 큰 것보다, 용인만의 특성이 무엇인기, 청년이 정책과정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리고 용인시 정책 모델을 다른 지역까지 확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방향과 관련하여 지난 7월 24일 청년재단 컨설팅에 참여하였습니다. 컨설팅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은 첫째, 지역 청년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할 것, 둘째, 청년 전담부서가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할 것, 셋째, 청년친화도시 지원예산을 투입했을 때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나 경기도 정책이 미처 채우지 못하는 정책 사각지대를 지역 실정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기존 사업을 단순히 나열하기보다는, 용인이라는 도시가 가진 강점과 청년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지정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용인시 청년정책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용인시 사회조사 결과 청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정책은 일자리와 고용 활성화였습니다. 한편 용인은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은 상근·상주인구가 약 3만 8천 명,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은 약 10만 6천 명 규모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산업 성장에 따라 일자리와 함께 새로운 청년인구의 유입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5세 ~ 29세 청년의 고용률은 남성 38.9%, 여성 37%로 전국과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반면 30대의 경우에는 전국이나 경기도 평균과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에는 총 12개 대학이 있으며, 청년정책 원스톱 플랫폼인 ‘청년e랑’을 운영하고 있어 대학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20대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종합하면, 용인은 산업과 대학, 청년정책 플랫폼이라는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지역 강점을 청년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와 정착, 참여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지역 강점을 청년의 성장·정착·참여로 연결하기 위해 크게 3가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산업과 청년 간 일자리 접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용인청년 우선채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확대하여 용인의 산업 성장 기회가 지역 청년의 취·창업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산업 성장에 따라 새롭게 유입되는 청년들이 단순히 용인에서 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거 점프 프로젝트와 지역 청년 간 교류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20대 청년의 정책참여 진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대학 연합 페스타 등을 통해 지역의 대학생들이 용인이라는 지역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도록 하고, 청년e랑을 고도화하여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설문조사와 청년수다 기능을 활용하여 참여형 콘텐츠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우선 2027년부터 민선9기 공약사업과 주요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내년 2월까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후 2028년과 2029년에 추진할 청년친화도시 핵심 전략 및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반영한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계획을 2027년 4월까지 수립한 후, 2027년 8월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선 기존 정책을 청년친화적인 관점에서 확장하고 분야별 정책과 사업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용인만의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한 외부 기관과 전문가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실제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청년의 정책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조성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 성과 확산까지 각 분야의 전문성과 청년의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총 6개입니다. 관악구는 청년인구와 대학 인프라를, 부산진구는 청년 유동인구와 문화자원을, 거창군을 영농과 청년 공동체를 강점으로 활용했습니다. 또한 순천시는 청년 전담조직과 참여제도, 공주시는 로컬크리에이터, 성동구는 생활체감형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우리 시도 다른 지역의 사례를 그대로 따르기보다 반도체 산업과 대학 인프라, 청년e랑 등 용인의 강점을 청년의 성장·정착·참여로 연결하는 특화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민선9기 청년정책과 공약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용인청년 우선채용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용인시 청년과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우선채용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기업의 기업정보와 채용계획 등을 청년e랑을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 채용실적과 고용여건 등을 평가하여 용인형 청년친화기업을 인증하고 지역청년 채용 및 근속에 따른 인센티브도 함께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용인청년포털 청년 맞춤형 채용정보 제공입니다. 청년e랑 내 취·창업 분야를 상위 메뉴로 신설하고, 취업 준비 단계별 일자리 가이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데이터처의 일자리 맵과 참 괜찮은 강소기업 일자리 지도 등을 연계하여 청년이 지역과 기업별 채용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AI·소프트웨어 및 스터디카페 이용료 지원입니다. AI·소프트웨어 구독료 지원은 기존 600명에서 2천 명으로 확대하고 용인시 청년에게 1인당 연간 최대 5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규로 미취업 청년 300명을 대상으로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료를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2027년도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은 용인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청년 예비 창업자와 창업 준비자를 대상으로 2028년부터 창업자 임대료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서와 기관별로 분산된 창업지원사업과 교육정보를 청년e랑에서 통합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훈 공동위원장〕** 청년정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 발언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손 들고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서정일 위원〕** 2개가 있는데요. 스터디 카페 이용료가 얼마예요?

❍ **〔청년일자리팀장〕** 하루에 한 4~5시간 이용한다고 하면 보통 1만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 **〔서정일 위원〕** 스터디 카페는 저도 가봤는데 청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연간 10만원 지원으로 되어있는데. 근데 저는 청년들한테 조금 더 우리 용인시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저도 의회 전반적인 결산 심사를 해보니 용인시가 재정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조금 올리는 건 어떤가 의견입니다.

❍ **〔간　　사〕** AI·소프트웨어 구독 지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예산이 편성됐던 거고요. 지원 금액은 높아지지는 않았으나 지원 인원을 지금 2천 명까지 확대한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금액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이제 수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내년 예산을 1억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스터디 카페는 내년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저희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매년 이게 수요를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는 이제 시범 운영처럼 저희가 하고 추이를 봐서 이제 내후년에는 좀 더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정일 위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겠습니다.

❍ **〔간　　사〕** 감사합니다.

❍ **〔박예지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이 자체만을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책 전체에 대해서 의견을 드려도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 **〔김정훈 공동위원장〕** 구분해서 전달주시면.

❍ **〔박예지 위원〕** 저는 일단은 반가웠던 점이 제가 지난해 네트워크에서 AI 소프트웨어웨어 제어 사업을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되고 AI 부분도 이렇게 반영이 돼서 되게 반가웠고 그리고 지원 규모도 되게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되게 반가웠는데 이게 청년의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 점이잖아요. 제가 올해 이용하면서 정책에 조금 수정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 고민 타파 전담 솔루션 플러스 이 정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다 내기 5회기 상담이 가능했었는데 올해는 3회기로 변경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심리 상담을 전공을 하고 가족 상담을 전공을 하고 수련하는 입장에서는 3회기가 정말 애매해요. 접수 면접 한 번 하고 두 번 만나면 이제 끝나는 상황인데 그쪽 입장에서는 예산이 안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럼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뭔가 3회 운영 유지를 해야 된다면 모든 이용자한테 심리 상담을 동일하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심리 평가를 해서 중간에 해석 상담까지만 해서 조금 이런 선택지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솔직히 그 이상으로 심리 상담을 이어가는 거는 청년들한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한 회기에 7만 원, 8만 원 되는 것들을 돈을 내면서 청년들이 이용을 한다는 건 사실 어려울 수 있어서 이제 심리 평가 해석은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TCI라든가 SCT는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구분을 해서 하시면 조금 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간　　사〕** 네 일단 고민타파 솔루션은 사실 이게 경기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경기도가 요즘 재정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사실 예산이 이제 줄어드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어렵지만 어쨌든 좀 더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박예지 위원〕** 한정된 예산이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고 도 사업이라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지원된 정책 안에서 최대한의 수혜를 누리는 청년의 입장도 고려되고 지자체 입장도 고려해 봤을 때 차라리 심리 평가 실시와 해석으로 깔끔하게 끝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 갖고 실비로 들어가는 게 TCI 같은 경우에는 5천 원이고 MMPI 같은 경우에는 실비로 1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걸 한 회기를 좀 제외를 하고 그 예산을 가능하시면 그 예산을 돌려서 이제 하시는 방법 그리고 SCT는 별다르게 돈이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기관에 문의해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승현 위원〕**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그러면 지금 이제 청년친화도시는 이번 올해에 하고 있는 건 지원을 안 하고 내년에 이제 지원을 할 예정이신건가요?

❍ **〔청년정책팀장〕** 내년에 처음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 **〔이승현 위원〕** 그러면은 2년 동안 예산 지원이라는 혜택이 있는데 이게 5년 동안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3년 동안은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 여기에 주어지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주거 점프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좀 많이 궁금해가지고 이게 혹시 어떤 프로젝트인지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용인시에 대규모 반도체 산단이 지어질 예정인데 지금 지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쨌든 지금 용인시에서 청년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부분은 일자리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여기 사업들이 되게 시민들에게 많이 유용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대규모 상단지가 사실 언제쯤 완공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 반도체 그게 지어지는 것과 지금 이런 우선 채용 협약 체계나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거는 이거대로 진행이 되고 반도체 상단은 그 이후 30년 이후에 혹시 채권이 돼가지고 이게 조금 약간 아다리가 안 맞게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 **〔간　사〕** 주거 점프 프로젝트는 저희가 이제 물론 국토부 사업이긴 한데 청년 월세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이제 저희 사업을 묶은 거예요. 단계별로

월세 지원하는 사업이랑 그 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사업, 이사비 지원하는 사업 이런 거를 좀 묶어서 저희가 이제 주거 점프 프로젝트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내년에는 좀 더 이제 예산을 더 세워서 좀 확대하고자 하는 그래서 여기 시에 청년들이 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 **[이기옥 교육청년여성국장]** 우선채용 지원과 관련해서 정도체랑 연결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우선 채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도 지금 소부장 기업이라든가 기업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그 기업과 협약도 맺고 그다음에 지원책도 마련해서 우선 가겠다.
반도체 국가 산단이 완공되는 시기에 기다린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우선적으로 간다는 내용 말씀을 드리고, 이게 공약으로 왔다는 거는 이제 민선9기 이상일 시장님께서 재선되셨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용인 청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자꾸 만들어가야 되고 일자리는 계속 유입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 용인 청년들이 그 기업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축을 해서 기업에도 혜택을 주고 청년에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내용으로 공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청년친화도시에 대해서는 되게 고무적이에요.
다들 여기 아시겠지만 여성친화도시가 용인시고 그리고 아동친화도시가 용인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청년친화도시의 첫 발을 디디는데 이제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우리 청년 업무를 하고 있고 그 첫해 2년간만 2억 5천씩 해서 그것도 매칭으로 해서 주다 보니까 국비도 되고 우리도 시도 되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온다면 지정도 해주고 그리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는 그런 시스템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첫 발이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표방을 해 가면서 나아가면 될 것 같고요.

❍ **[청년정책팀장]** 처음에 지정 기간은 5년인데 2년간 사업비가 지원되니까 나머지 3개년은 어떻게 무슨 지원을 받냐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재정 지원 외에도 컨설팅이랑 교육이랑 정부 정책 연계 자문 등이 함께 제공되는

사업이어가지고 사업비가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이기옥 교육청년여성국장〕** 생각보다 이제 국가가 이제 국비를 첫 2년간만 준다니까 의외로 이제 좀 그런데 더 투입이 되면서라도 어떤 청년 친화 도시로서의 용인이라는 위상도 생기고 저희가 좀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정말 추진해 보고 싶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니까 위원님 많이 또 도와주시고 우리 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서정일 위원〕** 국장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게 저 한 명의 의원이 얘기를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계획을 좀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고 우리 시의 자체 그 정책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그 정책에 국가에서 지원한 거를 그대로 수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성동구에 보면 오래된 시멘트 공장에 있던 그 부지에 그 청년들이 매주 토요일이면 줄 서서 있는데 저 친구들은 왜 저기 줄 서 있지 궁금하다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몰리는데 바로 거기가 이제 지자체가 기초단체가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 사업을 하는 공간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과 함께 이런 지원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런 공간을 잘 만들어서 잘 운영을 하면 더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용인시도 조금 어떤 우리 용인시 공간 중에 어디를 사실은 주택 지가 많이 있는 곳에 시멘트 공장 이런 데 있어요. 우리도 근데 거기를 내보내지 못하는데 그거를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뭔가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을 때 국가 계획을 더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처음 왔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 **〔이기옥 교육청년여성국장〕** 그래요. 위원님 어떤 청년 공간은 지금 다 아마 아실 거예요. 저기 우리 지금 우리 참여 기구가 이 청년 조정 정책위원회하고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제안도 많이 하고 이래서 그 제안이 우리 정책으로 지금

하나씩 실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소프트웨어 지원비도 그 네트워크에서 제안을 해서 이게 저희가 또 채택해서 이제 하고. 그리고 대학체전 같은 거 이번에 9월 4일 날 우리 관내 대학교 5개 대학이 모여서 대학생들이 체전을 했는데 그것도 네트워크에서 제안을 해서 이제 그게 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렇게 정책 추진을 했고 이런 것처럼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청년들의 의견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모아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 공간으로는 우리가 LAB이 있잖아요. 청년 LAB. 처인구에도 있고 역북 개발 역북 지구에 있고 그리고 기흥도 기흥구청 앞에 있고 수지는 아르피아몰 거기 세 곳이 있고 표방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건은 그래요. 처인 청년LAB 같은 경우는 임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중앙시장에 스마트 워크라고 재생산하고 있는 데에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고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 조금 더 욕심을 낸 게 청년 창업 공간까지 같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청년들이 어떻게든 용인시에서 살기 좋다라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저희가 더 어떻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좀 많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친화도시가 저희도 되게 욕심을 내면서 하는데 여기 이제 관점이 있어요. 핵심 전략으로 해서 뭘 이렇게 발굴해서 갈 거라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표방해갖고 지정을 받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담아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약 사업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청년 친화기업 인증이라든가 이런 거 다 조례 개정이 이렇게 수반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 절차들의 기관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시간들 소요는 하겠지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현진 위원}** 청년친화기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산업계에 있다 보니까 참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잘 세팅이 되고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기업에 우선적으로 기업에 주는 혜택이 명확하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구나 이런 게 담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용인이 반도체 도시, 반도체 도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청년친화기업을 반도체 업종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지금 반도체가, 원산의 SK 반도체가 영업을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려면 내년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1기 팹이 시작되는 거예요. 4개 팹이 이루어지는데 4개 팹까지 다 이루어지려면 5년간, 20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1기 팹이 이제 내년에 가동되니까 용인의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 외의 기업이 많거든요. 반도체, 반도체 너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좀 거부감을 일으키는 그런 일반적인 업종도 있어요. 일반적인 반도체 외에 일반적인 기업도 좋은 기업이 많으니까 반도체 외에 그런 기업도 다 포함되는 그런 청년 친화 기업 인증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기업에서 용인에 이제 청년을 채용할 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구나. 이렇게 피부에 느끼게끔 혜택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면은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 **〔이기옥 교육청년여성국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긴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세팅을 잘 해볼게요. 기업에게는 채용을 한 어떤 혜택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청년이 이렇게 일정 기간 올해 근속 근무를 하면 근속 장려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팅을 잘 하겠습니다.

❍ **〔김현진 위원〕** 그리고 이제 어떤 과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용인 청년만 채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 청년에도 지원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 회사에 다녀요, 다닌다 그러면은 그 청년이 향후에 회사에 취업이 되고 용인에 거주하게 되면은 이런 측면도 이게 혜택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기옥 교육청년여성국장〕** 네 여러 가지로 고려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정주하면서 살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 **〔노자은 위원〕** 청년 우선 채용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반도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이제 포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청년친화도시가 청년이 당연히 타겟이 되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오늘 아침에 다른 연구 때문에 고령친화도시 고민하고 계시는 사회복지 현장 분들 만났어요. 그런데 노인친화가 아닙니다. 전 연령친화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인분들이 저렴한 식사를 제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인분들이

지역사회에 가서 착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지역 소멸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기여하게 하는 게 고령친화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친화가 청년 우선 채용이라고 했을 때 청년 친화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약간 거부감이 들 수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좀 예민함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컨설팅 여기 3페이지에 이 문서에 3페이지에 보면 컨설팅 주요 내용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사항이 뾰족해 보이지가 않아요. 이건 용인시에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보편적인 얘기들을 나열을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컨설팅을 받을 때 어떤 걸 의뢰를 했고 이 재단에서, 청년재단으로 보이는데 이 재단에서 무엇을 초점을 맞춰서 이런 많은 얘기를 했는데 좀 보편적인 그걸 추리신건지 약간 어떤 실효성이 있는 컨설팅이었는지가 좀 궁금하고 만약에 이게 전부라면 앞으로 컨설팅을 받을 때는 조금 더 요청을 할 때는 좀 더 재단에게 좀 뾰족한 내용을 요구를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전체를 아우르고 있을 테니 이건 4가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인의 안 붙여도 성남에 붙이고 수원에 붙이고 다 해당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컨설팅을 요구하면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걱정은 아까 첫 발을 디뎠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연구원의 또 청년 정책에 대해서 주택 연구도 해왔고 일자리 연구도 해왔고 작년에는 친화도시 조성 방안 연구라고 또 그것도 좀 기초적으로지만 좀 했어요. 물론 방향이 처음이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콘텐츠 그러니까 사실은 뾰족한 콘텐츠가 우리 영역에는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 분야를 다루고 좀 전방위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였는데 마침 이제 약간 전략 쪽을 보니까 그 연구 보고에서 테크 트랩, 그러니까 성장 트랩으로 제시를 했던 그 내용들이랑 조금 연관성이 있어 보여서 나중에 그 계획서를 쓰시거나 또는 근거가 필요하시거나 할 때는 연구 보고서들 좀 들여다보시면 이제 좀 추상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좀 객관적인 근거를 활용하시기에 좀 보고서 때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기옥 교육청년여성국장〕** 관심을 가지고 이번 연도 7월에 일단 컨설팅을 가서 이제 분위기를 본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받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또 컨설팅도 더 여기저기 받아서라도 지정에 지정이 꼭 될 수 있도록 더 하겠습니다.

❍ **〔노자은 위원〕** 이거는 다 데려다 놓고 한 건 거군요.

❍ **〔이기옥 교육청년여성국장〕** 예 26년 기준으로 컨설팅 운영을 하는데 청년재단에서 이제 이러이러한 기준이 뭔지 왜냐면 처음부터 이제 우리도 청년 친화 도시 가고 싶은데 어떤 내용이지 이러고 이제 우리 직원들이 또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니까 그만큼 이제 노력이 자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시정연구원 연구 자료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제대로 분석을 해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가 할 테니까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보고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국 위원〕** 조금 실무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진행하시겠다는 공약 사업 내용 봤을 때 저희 진흥원이랑 좀 유사하게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 우선 채용 협약 체계 구축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지금 현재는 반도체 분야에만 국한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업에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채용을 희망을 하다 보니까 전문 분야를 지정해서 실제로 장비에 대한 실습이나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을 하고 저희 RND 지원 사업 같은 거 이제 반도체 부품이랑 장비 기업 대상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기업들한테 이제 채용에 대한 희망 수요를 좀 들은 다음에 실제로 연결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업 지원을 아무래도 주업으로 삼고 있다 보니까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채용에 대한 희망 정보나 분야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진흥원이랑 같이 조금 협력해가지고 이런 거 사업을 진행하면 서로 좀 시너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이나 맞춤형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창업 지원 센터 내에다가 이제 청년이든 아니면은 그냥 일반 예비 창업자든 상관이 없는데 입주를 하게 되면은

임대료 자체가 이제 면제예요. 그래서 이 임대료 지원 사업을 진행 하시는데 만약에 이제 관련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뭔가 이런 창업에 대한 수요가 있는 상황이 된다면 진흥원이랑 같이 연결해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 저희도 이제 예비 창업자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이나 멘토링을 같이 진행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 해드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아마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기업 종합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기업지원과랑 같이 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모 사업이나 기업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모 사업을 다 통합해가지고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랑 지금 청년e랑 이거랑 연계해서 취창업이 되었든 아니면은 청년들 대상으로 교육 같은 거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같이 정보 공유가 된다 그러면 참여가 좀 더 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기옥 교육청년여성국장〕**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공약이 나왔을 때 어느 파트가 해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기업 쪽에서 해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우리 청년도 대상이 청년이니까 우리도 하고 그래서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공약이 되어 있고 또 같은 용인시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가장 시너지 날 수 있게 좀 이렇게 포괄하고 집약해 갖고 한번 전체를 가지고 컨트롤을 하든 뭐를 하든 이렇게 좀 청년정책과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현 위원〕** 저 궁금한데 혹시 창업이랑 채용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수요가 많은 편인가요?

❍ **〔최상국 위원〕** 지금 저희가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는 채용 연계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은 못 하고 반도체 쪽 부품이랑 장비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채용 희망하는 걸 조사를 해가지고 연계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저희가 교육을 한 270명 정도 진행을 했고 그중에서 한 30명 정도는 채용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결이 됐었고 그리고 창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청년만 별도로 구분해가지고 내용을 조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현재는 저희 입주실 같은 경우에는 공실은 없는 상황이고 별도로 공실이 발생하면 수시 모집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영덕동에 있는 입주 지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청년 창업하신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이승현 위원〕** 몇 개 정도 호수가 공실이 없는건지

❍ **〔최상국 위원〕** 저희가 본원이랑 지금 영덕에 있는 거 합한다 그러면은 호실이 한 그래도 22개 오실 정도가 있고 저희가 동백에서 임대 공간을 또 별도로 쓰고 있는데 거기는 한 14개 오실 정도가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한 3명에서 4명 정도 규모로 초기 창업 진행하신다고 했을 경우에는 입주실을 제공할 수 있는 게 한 34개 오실 정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동백에서 별도로 공간 쓰고 있는 것 중에 1인 기업들 대상으로 별도로 기업 활동 하실 수 있는 좌석을 배정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한 30석 정도가 있습니다.

❍ **〔임정섭 부위원장〕** 저는 이번 회의 개최에 느낀 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개최하기 많이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 친하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회의부터 이렇게 좀 사실 좀 많은 아쉬움을 느꼈는데 누군가의 책임이다 이런 의미보다는 모두가 일정이나 이런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느끼고요. 장소가 안 되면 시청 광장에서라도 해서라도 어디서든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도 이제 느낀 게 고등학교 때도 야자 수업 안 하고 가는 친구들이 있으면 꼭 남은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한 30분 동안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참석 잘해 주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나눈 게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10월달에 또 한 번 회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0월 회의 때는 사실 이렇게 성원을 못 맞춰서 계속 안절부절하는 상황이 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만약에 이제 우리 시의원 분들도 있고 다른 분들도 있는데 청년 이제 위원들은 저희가 단톡방에 있거든요. 저희 안에서도 계속 서로 독려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안 오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제가 방문해서 관심 가져달라라고 말씀을 할 테니까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오늘은 좀 듣고 싶은 얘기가 올해 처음 했던 이 청정체전 어떻게

했는지 사실 너무 궁금하거든요. 가고 싶었으나 가지 못했는데 언론 기사로만 접하다 보니까 혹시 지금 그동안에는 저희가 보면은 네트워크 중심적으로 청년들의 의사를 많이 듣고 소통을 했다면 이번에 조금 다른 케이스 같아요. 대학생으로만 모인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서 청년 정책 퀴즈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다양한 활동도 하셨는데 혹시 좀 느낀 점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좀 이렇게 참여하지 못했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 **〔이기옥 교육청년여성국장〕** 어제 해단식 했어요. 예 해단식 했으니까 그 아주 1년 여의 장정으로 유지했으니까 한번 류화 팀장님 추진하셨으니까 얘기 좀 해줄래요?

❍ **〔청년정책팀장〕** 네 우선은 체육대회만 추진된 게 살짝 아쉽다는 의견들이 있긴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도 증액해서 지금 원래 사업비가 2천만 원이었거든요. 사실 무대 설치까지 있었던 거라서 2천만 원으로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이 놀랐었고요. 이제 7월 20일자로 왔는데 근데 어쨌든 다들 즐기고 즐거웠었는데 이제 너무 체육대회에 한정됐다는 얘기를 저희가 듣고 내년에는 좀 더 프로그램 같은 걸 확장시키고 동아리도 참여할 수 있게끔 좀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대중적인 요소들을 좀 더 넣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당일에는 용인대가 거의 승리를 다들 다 승리해 가지고 조금 또 승패에 대한 게 조금 있긴 했었는데 다들 즐거웠던 청정대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기옥 교육청년여성국장〕** 1년여가 걸렸다는 거는 뭐냐면요. 3, 4월 1~4월까지는 대상 대학을 모아서 학교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학교 측의 지원을 안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예산이 2천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랬고 그래서 5개 대학이 학교 관계자와 총학생회장 아니면 동아리 회장까지 해서 이렇게 다 TF팀으로 묶어서 네 차례의 간담회를 거쳤어요. 그것도 이제 간담회가 이렇게 네 차례 그러니까 네 번인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준비해서 한 번 하고 또 금방 와 이래갖고 9월 4일 날 이제 최종적으로 대회를 열었던 건데요. 거기에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TF팀에서 다 의견들을 내셔서 정하셨다는 게 되게 고무적이고 예를 들면 축구는 반드시 하셔야겠대요. 그리고 줄다리기 그리고 저기 뭐죠? 그거 뭐지 정책 퀴즈 그리고 또 각 대학의 응원단이라고 그러나 있잖아요. 공연도 다 보여주겠다 이래서 아주 성황리에 이제 3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됐고 왜 이게 명수를 더 늘리고 싶어도 못했던 게 유니폼이나 이제 식비라든가 차량이 동원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원은 일단 자유 참여로 무조건 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런 데 보면 선수 선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고가 좀 들어가야 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뜻깊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를 기약을 하자라는 게 어제 해단식의 요지였고 더구나 이제 저희가 2천만 원은 더 증액해놓은 게 맞다. 그래서 본 예산에 욕심을 가지고 더 이제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이제 위원님 가셔서 꼭 해 주셔야 돼요. 네 아무튼 대학생 분들 학교 관계자 다 하시는 말씀이 용인에 12개의 대학이 있는데 이렇게 한자리에서 모여서 학생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또 교류 시간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았어요. 벌써 이렇게 만남을 또 하셨고 커플이 또 계시고 또 이렇게 또 까지 돼서 굉장히 어떤 대학생들에게는 좋은 어떤 행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또 관심 가져주세요. 그리고 이번 행사 말고도 우리 청년 페스티벌 있잖아요. 시민의 날과 함께하니까요. 그 부스도 꼭 방문하셔서 저희 격려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정섭 부위원장}** 그래서 저도 체전 그 정도 규모면 축제를 1년에 두 번 하시는 상황이 되시겠구나해서 노고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10월 3일부터잖아요. 청년페스티벌이 있으니까 저도 매년 참석을 하는데 사실 저희 위원 분들께서 그래도 하루는 꼭 방문을 하시는 게 가장 제가 보기에 좋은 것 같고 사실 청년정책과에서도 지금 SNS 활동이 작년보다 훨씬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구독하고 인스타, 유튜브 이렇게 구독하다 보면은 좀 더 빨리빨리 와닿으시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계신 분들은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자은 위원}** 사회복지 국장님 계시지만 사회복지 그러니까 시민분들 만날 일이 올해 되게 많았었어요. 연구 덕분에 그런데 연대나 연결, 우리가 도시

발전하면서 동네라는 개념이 자꾸자꾸 약화되고 그 관계가 굉장히 약화되는 상황에서 이제 사회복지 보장협의체 위원들이라든지 이렇게 곳곳에서 나서주시는 분들 덕분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청정체전 한다고 했을 때 되게 촌스러운데 레트로다, 그러니까 촌스러운 거랑 레트로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이런 커뮤니티도 많아지고 이런다고 하는데 이게 용인형 청년친화도시 전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되게 개인화되어 있는데 우리 용인시는 도농 복합, 도농 복합하지만 그게 뭔가 단점이나 개발이 덜 돼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특성을 살려가지고 연결하고 연대하고 하는 것들을 청년 쪽에서 장치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라는 것도 용인형인 것 같아서 강화해야 할 장치로 보인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진 위원]** 본인이 시에서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많이 고심해 주고 새로운 거 많이 마련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무적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실제로 겪은 상황이라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저희 아이가 서울 안암에 학업 때문에 가 있어요. 주소지는 그걸로 돼 있는데 이번에 졸업을 하고 해외로 파견 연구원을 가요. 갔는데 그러면 주소지를 이제 용인 아빠 집으로 옮겨라. 청년 지원책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것도 알아보고 이제 옮겨라 그러니까 애가 하는 말이 용인보다는 서울이 더 지원 정책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 참 똑똑하잖아요.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용인시에서도 어떤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걸 이렇게 같이 그냥 한다는 것보다 좀 특화된 거 용인만이 이제 내세울 수 있는 이런 강점을 좀 정책으로 개발하셔서 그런 지원이 좀 제도화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자리를 이석해야 돼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려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 **[박예지 위원]** 저는 정책 간의 연결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저는 네트워크도 했고 랩도 했고 커뮤니티 지원 사업도 했고 근데 다 따로 놀아요. 소통하고 싶은데 다 따로 놀아서 그 사실 제가 연결하는 거에 가까운 거예요. 시민 참여 사업도 제가 갖고 와서 네트워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정책과에서 물론 LAB 기자단은 복지팀에서 하는 부분이고 정책팀에서는 이제 커뮤니티 지원 사업과 조정위 그리고 네트워크를 하는 걸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각각의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런 걸 되게 아쉬워하셨어요.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청년들은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왜 여기까지밖에 못 만나지 청정체전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고 거기에서 정책을 알아가고 서로를 아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끊겨 있는 느낌이 그러니까 마중물에 대한 정책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가 근데 유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네트워크도 그렇고 조정위도 그렇고 계속 사람이 바뀌면 다시 시작해야 되고 공무원 분들도 비슷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전환이 되면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연속성도 조금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정훈 공동위원장]** 저는 이번 안건 청년친화도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용인시 자체가 거버넌스나 체계 자체가 좀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 대비해 봤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3차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프레임을 좀 잘 잡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사안이다 보니 거기서도 청년기본법 하면서 각 구분을 뒀거든요. 일자리나 주거생활, 참여권리 이런 분야로 각각 이제 어느 정도 평가를 할 텐데 또 거기 안에서도 분명히 청년들이 평가를 분명히 할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민간 위원들 몇 명 있으실 거고 그래서 그분들을 좀 어느 정도 설득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가 잘 잡혀 있다, 그리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컨설팅 주요 내용 같은 부분에서 봤을 때 이거는 사실 노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공통적인 부분이라 용인 자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반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지에 대해서 봤을 때, 저는 지역 청년의 특성을 봤을 때 여기 있으신 모든 분들께서 한번 다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용인 청년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사실 그런 고민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개개인의 그런 수요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활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이제 예산이나 아니면 중복 사업이나 도에서 하는 거 국가에서 하는 거 이런 부분이 좀 중복 사업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좀 가려내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이러한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왜 이 청년정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같이 해 준다고 하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기옥 교육청년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평가 지표에 보시다시피 청년 참여 정책 기본 현황이라든가 어떤 체계 구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분절되지 않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분명히 좀 당길 수 있게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 **〔김정훈 공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의견 주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신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 정책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년친화도시 지정 추진과 민선9기 공약 사업을 준비해 주신 청년정책과 담당자분들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용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 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석자 11명 : 김정훈 공동위원장, 임정섭 부위원장, 이기옥 위원, 문명순 위원, 서정일 위원, 김현진 위원, 노자은 위원, 최상국 위원, 조영민 위원, 박예지 위원, 이승현 위원